

HRI 체어퍼슨노트

# CHAIRPERSON NOTE

2011.06.27 (통권354호)



## 경제이슈

미국, 2차 양적완화 종료

6월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 경영노트

중간관리자의 역량이 기업성과를 좌우한다

## 사회 트렌드

페이스북 피로증후군

반기문 키즈

## 저널 브리프

리더가 명심해야 할 10가지

## 洗心錄

중국 최초의 경제학자, 관중(管仲)

□ 미국, 2차 양적완화 종료

-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하 연준)는 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를 통해 이 달 말 예정대로 2차 양적완화를 종료
  - 2차 양적완화 종료 : 연준은 22일 FOMC 회의를 통해 2차 양적완화(QE2)를 애초 예정대로 이 달 말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3차 양적완화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음
  - 성장률 전망치 하향 : 연준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전망치인 3.1~3.3%보다 낮은 수준인 2.7~2.9%로 하향 조정
  - 정책금리동결 : 또한 연준은 최근 둔화되고 있는 경기회복세를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현 수준인 0~0.25%로 동결
  
-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저금리 정책을 제외한 추가경기부양책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 경기 개선은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전망

□ 6월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중 102로 전월대비 2p 하락
  - 경기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77로 전월대비 4p 하락, 향후경기전망지수는 86으로 전월대비 5p 하락하여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증가
  - 물가 :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동일한 연평균 3.9%를 기록하며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물가 기대심리 반영
  - 가계부채 :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기조로 가계부채 문제가 가시화되며 현재가계부채지수와 가계부채전망지수는 각각 108과 104로 전월대비 1p 상승
  
- 전반적인 소비자 심리가 물가상승, 가계부채 문제, 그리스 재정위기 등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악화됨에 따라 당분간 소비가 위축될 전망

□ 중간관리자의 역량이 기업성과를 좌우한다<sup>1)</sup>

- 와튼 스쿨의 에단 몰락 교수는 지식 기반 경영으로 진행될수록 중간관리자의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증대된다고 주장
  - 조직 내에서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간과되는가 하면 비방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 중간관리자의 존재는 매우 중요
  - 이들은 조직의 자원을 배분하고 스케줄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동시에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대상 역시 아니기 때문
- 실제 분석 결과 혁신, 서비스 기업일수록 개인 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증대되며, 이 중 중간관리자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개인의 기여 정도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지식 및 혁신 경영이 도입될수록 개인의 역량은 중요해짐
  - 특히 포춘 선정 800대 기업의 분석 결과 중간 관리자 개인의 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고위급 관리자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내용은 기업 성과는 주로 경영 전략, 시스템, 조직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통념과 다른 것으로 중간 관리자의 중요성을 새롭게 강조

< 우수한 중간 관리자가 중요한 이유 >

	내 용
중간 관리자 역량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적 혁신·지식 산업인 게임 산업의 기업 분석 결과, 매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중간관리자는 22.3%, 혁신적 실무자는 7%로 나타남</li> <li>•이는 아무리 뛰어난 실무자라도 혼자서 성과를 창출할 수는 없으며, 결국 중간 관리자가 아이디어를 모아서 선택, 보고하기 때문</li> </ul>
우수한 중간 관리자의 높은 이직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간 관리자는 제한된 자원과 권한으로 조직을 통제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어 업무에 대한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는 자리임</li> <li>•또한 분석에 따르면 우수한 중간 관리자는 업무가 전혀 다른 조직에서도 성과 창출에 높은 기여도를 보여 언제든 이직의 가능성이 있음</li> </ul>
우수한 중간 관리자 확보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는 우수한 중간 관리자의 이직 시 비슷한 수준의 인력 확보가 다른 직급에 보다 더욱 어렵다는 점에 있음</li> <li>•결국 내부의 우수한 중간 관리자를 붙잡거나 외부의 우수한 중간 관리자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더 큰 관심과 보상이 필요함</li> </ul>

1) 본 자료는 ‘Why Middle Managers May Be the Most Important People in Your Company(Knowledge @ Wharton, 2011. 5)’를 요약 정리함

□ 페이스북 피로증후군<sup>2)</sup>

- 미국, 캐나다에서 지난 한 달간 약 700만 명이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
  - 최근 들어 ‘페이스북 피로증후군’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계정을 폐쇄하거나 사용시간을 대폭 줄이려는 이용자들이 뚜렷한 증가세
  - 페이스북 이용 중단을 선언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은 숫자만 많고 실속은 별로 없는 온라인 친구관계, 지나친 중독성 등임
- 지난해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13~17세 청소년의 경우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시간이며, 이 중 80%를 SNS에 사용한다고 함
  - 약 28%가 페이스북에 더 이상 재미없다는 반응은 나타냈고, 약 20%는 이용을 중단하거나 이용시간을 대폭 줄인 적이 있다고 답함

□ 반기문 키즈<sup>3)</sup>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 이후 한국인들의 국제기구 진출도 급증
  - 유엔과 산하 기구인 유네스코, 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기구에 진출한 한국인은 2002년 219명에서 2011년 398명으로 증가
  - 특히 지난 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14명의 한국인이 들어갔고, 26명은 이들 기구의 선발 후보자 명단에 오름
- 제2의 반 총장을 꿈꾸며 국제기구에 진출하려는 대학생 등 이른바 ‘반기문 키즈’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
  - 다만 국제적 위상에 비해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은 여전히 미흡
  - 한국의 유엔 분담금은 4800만 달러로 세계 11위인 반면 유엔 내 한국인 직원은 105명(작년 기준)으로 192개국 중 72위에 머물고 있음
  - OECD도 한국의 분담률이 2.69%인 반면 직원 2639명 중 한국인은 10명으로 0.37%에 불과
  - 이에 따라 외교부는 올해부터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를 매년 5명에서 15명으로 늘려 선발하는 등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

---

2) “페이스북 피로증후군”(문화일보, 2011.6.21) 참조

3) “국제기구 곳곳에 반기문 키즈”(중앙일보, 2011.6.23) 참조

□ 리더가 명심해야 할 10가지<sup>4)</sup>

■ 최근 ‘차란 어소시에이츠’사의 램 차란(Ram Charan) 대표는 리더가 명심해야 할 10가지 덕목을 제시하였음

- ① 여러 렌즈를 끼고 거시적으로 다양한 조망을 하라
  - 리더는 다각적 시각으로 이슈를 바라보고 새로운 통찰력을 발휘해야 함
- ② 정보가 있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라
  -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동업자, 경쟁자, 시장에 대한 정보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함
- ③ 민관 파트너십을 활용하라
  - 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는 특히 신사업에 진입할 때 큰 도움이 됨
- ④ 길이 꺾어지는 지점을 포착하라
  - 급변하는 환경에서 주요한 트렌드 변화를 놓치는 것은 기업 활동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에 유의해야함
- ⑤ 새로운 경쟁우위를 만들어라
  - 경쟁우위는 경쟁자나 시장의 변화에 의해 쉽게 사라질 수 있으므로 새로운 경쟁우위 창출이 필수적임
- ⑥ 전략적 베팅(betting)을 두려워하지 마라
  -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의 기본임
- ⑦ 집중력의 복리효과를 노려라
  - 특정 사안에 장시간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 투입 시간 대비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이 가능함
- ⑧ 세계의 인재를 모아라
  - 글로벌 기업, 또는 세계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제품이나 기술, 주요 인재들을 세계 곳곳에서 확보해야함
- ⑨ 이머징마켓에 가서 살고 일해라
  - 선진국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은 이머징 마켓에서 발굴해야함
- ⑩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라
  - 리더에게 시간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음

---

4) 「차란 “글로벌 리더들이여, 10계명 명심하라”」 (이데일리, 2011.6.15) 참조

□ 중국 최초의 경제학자, 관중(管仲)

흔히 관중( ~BC 645)이라 하면 포숙아와의 깊은 우정을 다룬 ‘관포지교(管鮑之交)’의 주인공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관중은 제(齊)나라 환공(재위 BC 685~BC 643)을 춘추시대의 첫 번째 패자로 올린 재상으로 중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관중은 민본정치를 실천한 정치가였다. 관중은 백성을 착취하고 억누르기보다는 백성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정치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관중의 재산이 군주와 맞먹었으나 시기하지 않았고, 동료 신하들이 관중을 모함하지 않아 그는 천수를 누렸다고 한다.

둘째, 관중은 계급제도를 붕괴시킨 선구자였다. 관중은 포숙·소홀 등과 함께 안휘성(채나라) 사람으로 제나라의 토착 귀족이 아니었다. 또한 젊었을 때 장사를 하는 등 신분도 낮았다. 재상이 된 후에는 계급과 상관없이 우수한 인재들을 발탁해 제나라를 인재의 나라로 만들었다.

셋째는 관중은 경제를 기반으로 부국강병을 이룬 중국 최초의 경제학자였다. 경제학자로서 관중은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한다. 첫째로 그는 정치의 근간을 백성들의 생업 기반을 잡아주고 노동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군사, 농부, 공인, 상인을 각 지역에 따로 모여 살게 하는 클러스터 정책을 실시하였다. 사농공상 각각들이 분업을 통해 양적으로는 생산성을 도모하고 질적으로는 자식들을 장인으로 육성하는 산업정책이었다. 둘째, 상인들을 이용해 자율시장경제를 추구하였다. 춘추시대만 하더라도 곡식저장이 불가능해 백성들은 풍년이 되면 남는 곡식을 가축에게 먹여 낭비하고, 다음해 식량을 구하지 못해 굶어 죽는 풍년기근이 반복되었다. 그래서 관중은 상인의 역할을 특정 지방에서 넘치는 물자를 다른 지방에 공급하여 물가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 상인 육성을 위한 세금면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셋째로 국가는 백성들이 혼자 할 수 없는 산의 철, 바다의 소금 등 자원을 개발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 백성들의 집, 가축, 나무 등에 대한 세금 징수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재정학을 정립하였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성을 잃는 이성적인 동물이다.”

- 오스카 와일드(1854~1900) : 아일랜드의 시인, 소설가, 극작가